

중학교 학생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역학습*

윤 옥 경**

Perception on the Region and Learning a Region*

Okkyong Yoon**

요약 : 지역에 대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개념과 일상생활의 경험은 지역에 대한 인식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인식 방법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명시적 개념 정립 기회가 없었고,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지역의 스케일을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으면서 지리적 의미의 지역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역과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지역에 대해 범위의 면(面)적인 개념보다는 지점, 위치 등의 점(點)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랜드마크, 시사적으로 주목받는 지역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역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여행이나 테마학습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학습의 내용 구성과정에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지역개념, 지역 인식, 스케일, 지역학습

Abstract : In the process of learning a region, the perception on the region consists of the concept of students and the experience of everyday life.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construct contents of learning a region based on students perception and surveyed wha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and how to get such perception before learning.

Students do not hav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n a region, and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regional scale in the curriculum, thus resulting in acquiring a common concept on a region rather than a geographical concept on a region. Students conceive a region as a dot such as spot and location rather than as an area covering a certain territory. Especially, they form an identity of a region through landmarks and regional issues. Without a clear concept on a region, they show a limitation in acquiring information on a region through travels and thematic studies. The framework for learning a region that this study proposes is to include the content reflecting the perception on the region of students based on the essential attributes of the region.

Key words : regional concept, perception on the region, scale, learning a region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서울 오륜중학교 교사(Teacher, Oryun Middle School)

I. 서 론

학생들의 개념과 일상생활의 경험은 지식 구성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학생들은 지역연구자들이 어떤 주제를 정하고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지역에 접근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이 그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지리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객관적, 과학적 지식 즉 지리학에서 연구된 방법론, 연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들이 경험적 지식과 결합된다.

최근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적인 내용 구성이 강조되고 있어 교사가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지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교과로서 지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양식으로서 지리의 학습을 강조한다(남상준, 2001).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지역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지역에서의 삶을 의미있게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리교육의 주요 목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학습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은 학습자와 교사가 지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대한 새로운 틀과 지리교육의 관점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인식 방법을 조사하였다. 적절한 학습 내용의 구성은 효율적인 학습의 바탕이 되며 이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승규, 2000).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상생활의 경험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는 미흡하여 일상경험이 교육에 주는 영향이나 시사에 대한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의미를 정립하고 지리교육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류재명, 2002).

II. 연구 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연구는 지리교수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오늘날에는 연구 방법 측면에서 문헌기술적 연구 뿐 아니라 실험연구, 조사연구, 현장행동연구(action research), 질적 연구, 담론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보면 지리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지리 학습보다는 지리 교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서태열, 2002). 그러나 지리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지리개념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전 단계의 학습 내용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적절한 학습 내용의 구성은 효율적인 학습의 바탕이 되며 이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집단적 연구와 개별적 연구 중 개별 학생들의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조사내용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소수의 학생에 대한 사례 검토는 일반화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떤 학생의 특별한 접근방식이 다른 학생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개념의 다양한 양상을 기록하여 분석했다.¹⁾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D 중학교 1학년 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각각의 반응을 종합, 정리했다. 조사대상 학생 70명 중 분석에 적합한 54명의 결과를 이용했으며 조사는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이루어졌다. 중학교 1학년과 정의 지역 사회 탐구, 중부 지방의 생활, 남부 지방의 생활, 북부 지방의 생활 등 네 단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 테마학습에 관한 조사는 2001년 10월에 실시한 테마학습에서 도심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지역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표 1. 지역 인식 조사 내용

조사내용	세부항목
지역개념	지역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지역인식방법	다른 지역과의 유사점, 차이점 비교 우리나라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과 우리 지역과의 차이점 비교
	여행지에서 경험한 내용 중 우리 지역과의 유사점, 차이점 비교 여행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테마학습 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의 비교
지역 스케일 구분	스케일에 따른 마인드맵과 지도 분석(지역사회, 수도권, 중부지방, 우리나라) 스케일에 따른 지역인식 특징(수도권, 중부지방)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개념, 지역 정체성, 지역 조사 주제와 방법을 질문하였다. 또 우리나라 내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인식,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 등으로 학생들이 개방적인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지역에 대한 비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대해 인식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 스케일에 대한 구분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역 스케일(scale)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 수도권, 중부 지방, 우리나라에 대한 마인드 맵을 각각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스케일에 따른 각 지역의 특징을 지도에 그리는 작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 학생들이 주변지역에 대한 관찰이나 여행경험 등을 통해 보고 듣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답사과정을 지역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조사과정과 학습과정에서 관찰과 면접이 병행되었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지역개념과 지역인식 방법

1. 지역 개념에 대한 조사

본 연구에서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답은 '내가 사는 곳' '우리 삶의 터전' 등 지역사회(communitiy) 개념이 우세하여 공간의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실제 교과 내용에서 지역(region) 개념을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학

생들이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한편 학생들은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을 적기도 했는데 이는 행정구역과 지역을 구별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행정구역은 시·공간적 지속성으로 인해 상당한 관성을 가지며 기능적인 공간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임석희, 1995). 행정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가지면서 주민들에게 생활의 장소로서 작용해 왔으므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지역의 한 유형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역'이라는 용어는 서울지역, 안산지역 등과 같이 시, 도 등의 행정체계를 대신하는 접미사 정도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개념에 혼란이 더해졌을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과 '지역사회'에 대해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단순히 스케일상의 좁은 범위를 점하는 소규모 지역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역'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 중앙이 아닌 지방, 일정한 구획으로 나뉜 것 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내용을 기준으로 생활터전, 행정구역, 지역의 구분, 지역의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생활터전, 공동체로 파악하거나, 지역적 범위, 지역적 특징이 드러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지역에 대한 인식방법 조사

1) 지역 비교 하기

지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예를 들고 우리 지역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을 각각 적도록 한 조사²⁾에서 학생들은 그 지역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천, 제주도에서는 우리 지역과 달리 어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바닷가라는 위치 특성만을 고려한 답이었다. 인천에 대해 공업, 도시화 등의 주제보다 어업이라는 주제를 떠올린 학생은 인천에 대해 위치특성에 한정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하고 틀린 정보³⁾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이해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을 들고 그 지역과 비교하도록 한 조사에서 스케일의 제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을 골라 다양한 각도에서 특징을 기술했다. 인천, 제주도, 강원도, 대구 등 특정 지역을 적은 경우도 있지만 농촌, 개발하는 곳, 주변에 바다가 많은 곳 등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적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스케일의 다양한 특성을 적은 것은 지역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통일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이 비교하여 기술한 내용은 대체로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된 것이 중심이었고⁴⁾ 교과시간에 학습한 어휘⁵⁾를 사용해 비교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밖의 한 지역의 예를 들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과 우리 지역과의 차이점을 적도록 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 경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아파트가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는 점, 중국에 대해 황사 현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던 점 등을 주목해 볼 만 하다. 가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에는 체계적인 학습 내용 외에 매스컴, 영화에 나오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그 지역에 대해 왜곡된 이해가 형성될 수 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 밖의 한 지역의 예로 국가이름을 적은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밖의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은 지리적인 의미로 정의된 지역보다는 ‘국가’ 단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북극,

남극, 아프리카, 알래스카 등 인상 깊은 곳이나 영화, 매스컴 등을 통해 익숙한 홍콩, 파리 등의 도시를 적기도 했다. 학생들은 지리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고 세계의 여러 지역 학습에서 다루는 기후지역이라든가, 문화권 등 추상적인 개념의 지역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거론되는 국가나 도시와 같은 실제 지역을 선호하고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순서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지역지리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후 중국에 대해, 교과과정에서 학습하는 내용 외에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내용, 주제를 조사해 보았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 그러면서도 최근의 변화와 관련된 주제,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해 있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학습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비교 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세계 여러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지역 간 관련성을 학습할 수 있는 실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 우리의 생활은 세계 여러 지역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영화나 매스컴, 인터넷 등 각종 통신과 문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접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학습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여행과 테마학습을 이용한 지역 답사하기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은 지역학습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여행을 통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과 자연 환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환경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행지의 환경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의 주 목적은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학습 상황과 연결되지 못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대해 접하고 느끼므로 인해 지역에 대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⁶⁾가 많지 않으므로 사적인 여행 경험을 학습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⁷⁾

표 2. 여행을 통한 학습과정 조사

* 여행을 통해 새롭게 알게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응답율(%)
①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	41. 5
② 그 곳과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차이 (지형, 기후조건 등)	32. 1
③ 그 곳과 우리 지역의 인문환경 차이 (인구, 주택, 산업, 문화 등)	20. 8
④ 그곳과 우리 지역의 비슷한 점	5. 7
⑤ 그 곳과 우리 지역의 관계	0
* 여행지의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① 사람들의 생활모습	11. 1
②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59. 3
③ 주택이나 도로 등 지역의 모습	5. 6
④ 그 지역의 주요 산업 (공장, 광산, 농장, 논 등)	3. 7
⑤ 관광지나 관광객을 위한 시설 (역사유적지, 문화재 등)	20. 4

IV. 지역의 스케일에 따른 지역 인식

1. 지역에 대한 마인드 맵 분석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스케일(scale)별로 4개의 지역(지역 사회, 수도권, 중부 지방, 우리나라)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마인드 맵(mind map)을 작성하도록 했다. 마인드 맵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내용(개념)과 내용(개념)간 관련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사용한 내용 각 항목간의 관련짓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급의 항목(개념)을 병렬적으로 배열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의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여 내용이 구조적이지 않았다. 특히 지명을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는 경우도 있었다.⁸⁾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 맵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관 중심 내용, 교과 내용 중심, 지역 간 네트워크 등을 다룬 것들로 나눌 수 있다. 특히하게도 오직 지역간 네트워크만을 나타낸 학생도 있었다. 또 수도권에 대해서는 문제 중심으로 다루었고 학생들이 표현한 내용들을 관련지으려는 시도는 보다 큰 스케일에서 주로 나타났다.

각 스케일에 따라 구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스케일마다 같은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혼동하여, 표현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대한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마인드 맵의 내용이 단일 내용만으로 구성된 경우, 보다 짜임새이고 구조적인 반면 다양한 항목을 많이 나열할수록 구조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특성을 내용은 많으나 구조적이지 않은 유형, 지명을 나열하는 경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 맵에서 단일 주제만으로 작성한 학생의 경우는 좀 더 구조적이지만 다양한 항목을 많이 나열할수록 구조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여 모두 제시하는 것이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구조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스케일별로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 중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조사 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서울특별시 강동구 일대)에 대한 마인드 맵에서 주로 한강, 산(일자산)을 표현했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 학생보다 다양한 내용을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배경으로 생활하는 학생의 관찰과 경험이 보다 풍부했음을 나타낸다.

〈수도권〉

수도권과 서울을 동일시하고 인천,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부 지방〉

중부지방에서 고랭지농업이나 한강 등 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거나, 한강이나 태백산맥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다루기도 했다. 또 수도권에 대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중부지방에 대해 서울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시사적 내용이 압도적이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교과학습내용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사적 내용과 교과 학습내용간의 관련짓기 흔적은 없었다. 즉 학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리학습 내용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마인드 맵을 작성하는데 북한에 관한 내용을 대비하여 기입했다. 또 백두산 천지, 제주도 감귤, 울릉도 호박엿 등을 기입하여 장소의 상징적인 면을 표현했다. 때마침 2002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달아오른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도시들을 열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지역에 대한 학습에 시사 이벤트를 활용하거나 이슈 중심의 내용구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지역에 대한 지도 분석

지도는 의사소통의 지리적 형태로서 공간의 정보 전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도는 항공사진과 달리 지리적인 사실을 선택하여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에 지표현상을 기술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는 모든 지표의 현상이 뒤섞여 있는 지리적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해 줌으로써 지리적 사실간의 공간관계를 찾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며 동시에 자기가 발달시킨 개념 또는 이론을 발표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지도그리기는 공간적 관계를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지도에 표현되는 지역의 범위는 이미 지역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을 지리학적 의미로 정의하여 지도로 표현한 방식은 교과서나 사회과 부도에 제시되면서 학습과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즉 지역개념의 이해가 지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도는 지리적 언어라고 불릴 만큼 지리적 지식을 나타내는 수단인데, 지도 읽기와 지도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지리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도를 읽으면서 지도에 나타난 사실간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이 바로 개념화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조사 대상 학생 중 한 학생(그림 1)은 지도 작성 과정에서 시설,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표현했다. 지역사회 지도에는 가게들(문구, pc방, 부동산)이 업종별로 모여 있는 것, 수도권에서는 부도심과 도심을 언급하면서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 중부지방으로 각 지역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내용,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3면이 바다임을 표현했다.

지도에 지역의 특징을 나타낸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스케일별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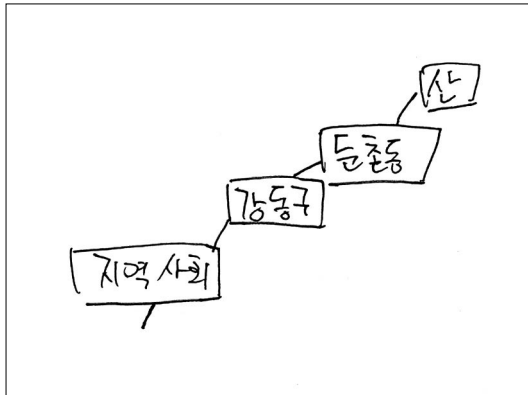
네모의 공란에 지역사회의 위치만 표시한 유형이 있었다. 가령 우리 지역을 공란에 한강 등을 표시하고, 그곳에서 위치를 표시하기도 했다. 학생들 대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작성하는 '우리 동네에 대한 그림지도' 처럼 네모 안에 우리 지역의 한 부분을 약도처럼 그려 넣었다. 그 안에 주로 그려 넣은 내용은 지역사회의 시설물들이었는데 아파트, 도로와 자동차, 학교, 산과 강 등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나 지역 유래와 관련된 지역 인물 등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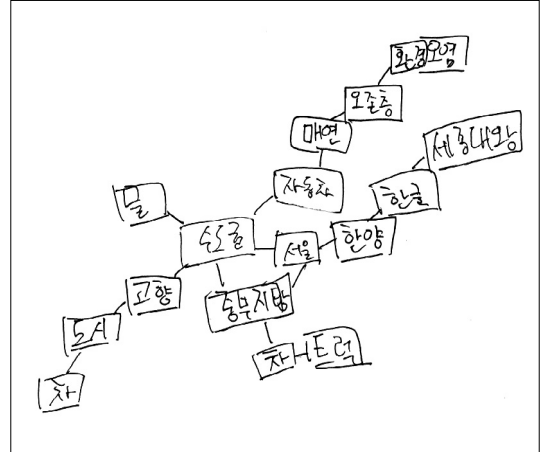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구분,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혼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환경문제, 인구집중, 도시(도심, 부도심), 수도권 공업지역(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표현) 등을 표현했다. 수도권에 대한 표현 내용은 교과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우세했다.

〈중부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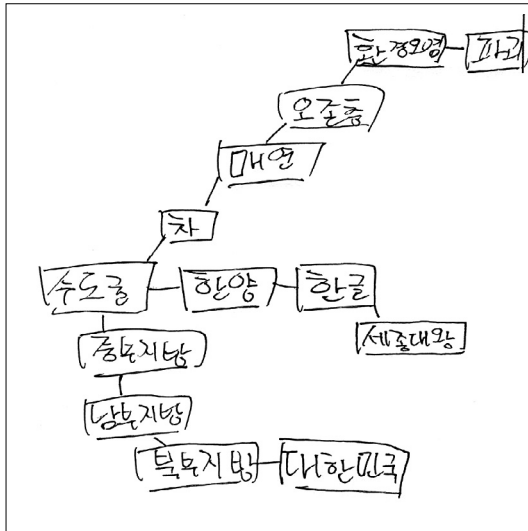
중부지방 지도는 압도적으로 태백산맥을 그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태백산맥이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하여 중부지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또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하는 내용을 지도에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조경수역과 간척사업이라는 내용을 적어 넣어 비교하기도 했다. 중부지방의 각 지방에 대한 이미지로 해수욕장이나 지하자원, 공장 등을 나타낸 학생도 있었는데 공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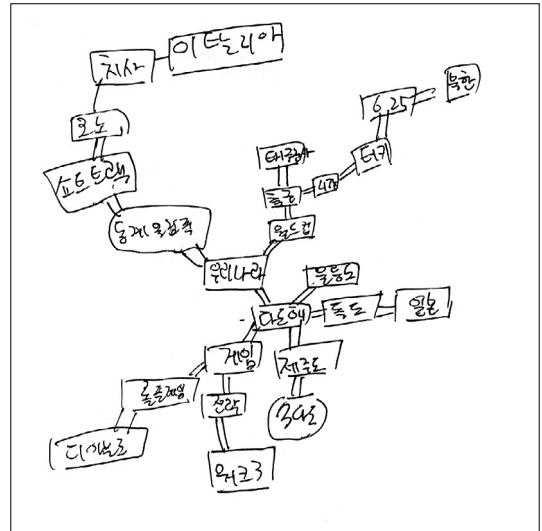
지역사회



수도권



중부지방



우리나라

그림 1. 스케일에 따라 작성한 마인드 맵 (학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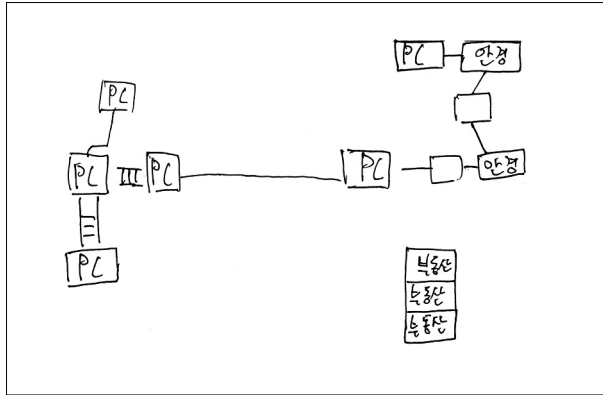
역을 나타낼 때 범위보다는 공장그림을 그려 표현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추상적인 주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구체적인 랜드마크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 과정에 랜드마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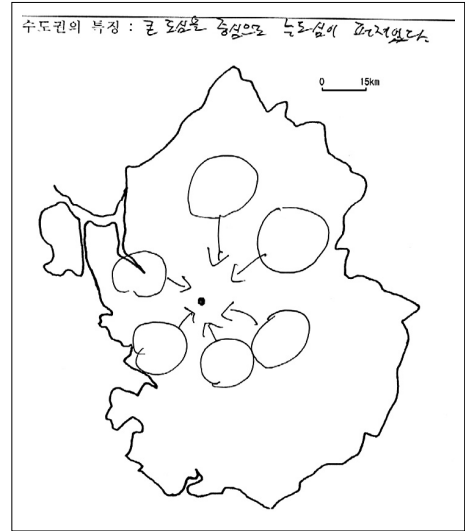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대해 지역마다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었다. 지도에서 스케일이 커질수록 지역

간 비교의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또 해안선을 따라 3면이 바다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게 되었고 각 해안선의 특징을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청정수역, 조경수역, 갯벌 등을 이용하여 동,남,서해안의 특징을 빠짐없이 표현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지도에 호랑이 모양을 그려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킨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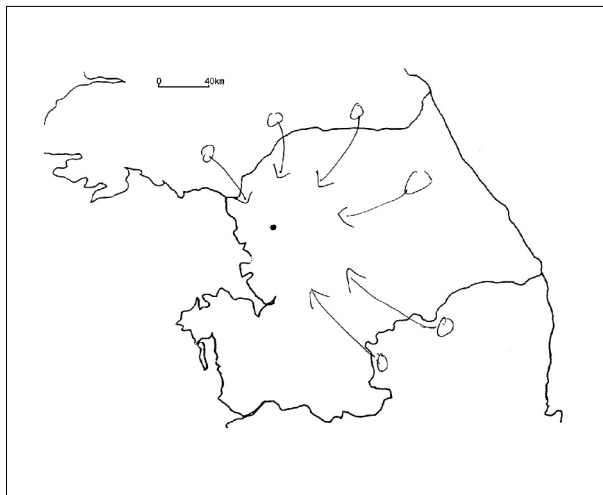
학생들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눈에 띄는 제주도에 대해 자세히 그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특정지역 중심의 학습내용을 구성해서 유용하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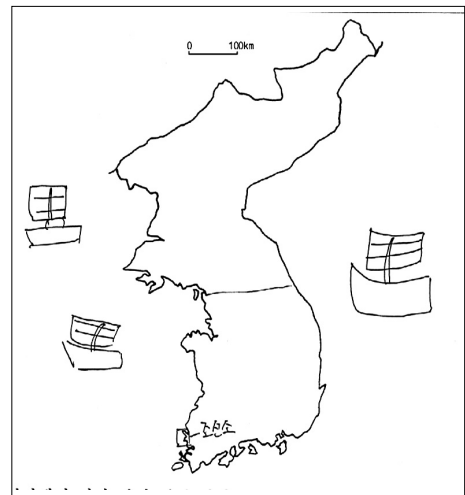
지역사회



수도권



중부지방



우리나라

그림 2. 스케일에 따라 작성한 지도 (학생 1)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에 지역 구분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는데 38 선을 표시하여 북한과 남한을 나누고 통일 등의 시사적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비록 경계선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를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지역 구분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다른 내용들은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혼동하고 있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학생들은 수

도권과 중부지방에 대해 공통적으로 ‘중심’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중부 지방을 ‘우리나라의 중앙부’라고 규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에 대해 인식할 때 스케일에 따라 구분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혼동은 계속된 것이다. 수도권에 대해 중심부라는 인식 속에는 보다 발전된 곳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주변의 후진성과 구분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표현했다. 학생들의 표현 속에는 특정 지명을

거론하면서 범위를 한정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역의 공업, 근교 농업 등의 특징을 적은 경우도 있었다.

중부 지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위치와 관련된 표현이 많았다. 중부 지방은 지역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가운데라는 위치개념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지역인식에 지명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아직 추상적인 지리적 지역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지명이 주는 어떤 지역에 대한 인상이 학습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보통 지명(어떤 장소의 명칭)은 낮은 수준의 정보로서 장소간 상호 관련성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하고 진부하게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명은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어디'라고 하는 독특한 장소와 상대적 위치 등은 지리적 이해의 바탕이 된다.

3. 마인드 맵과 지도 작성 내용의 비교

스케일에 따라 다른 지역에 대해 표현한 내용과 동일한 스케일의 지역에 대해 마인드 맵과 지도에 각각 표현한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표 3과 같은 분석표를 만들어 조사대상 학생들의 각 스케일에 따른 지도와 마인드 맵을 분석하였다.

마인드 맵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시설을 사용해서 특징을 표현했으나 지도에는 많이 그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것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그릴 자신이 없고 또 지도와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도에서는 마인드 맵과 달리 지명 사용 빈도가 적고 내용 표현에 치중하였다. 지도에서 지명을 마인드 맵에서 보다 적게 사용한 것 역시 위치를 몰라 어디에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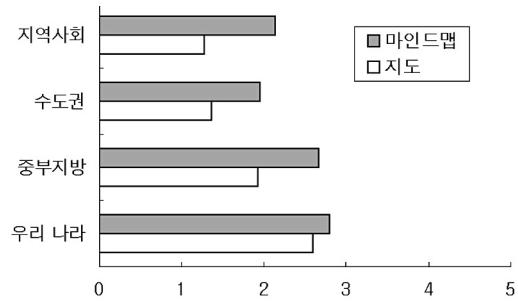


그림 3. 지명 사용 정도

넣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마인드 맵의 경우 지명을 많이 사용했다. 학생들이 마인드 맵에 지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의 지역보다는 실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인드 맵에서는 시사적 내용이 많았지만 지도에서는 지리적인 내용(자연)이 많이 표현되었다. 지도에 어떤 산물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그려 넣는 경우도 있었다. 지도에서 다른 시사적 내용과 마인드 맵에서 다른 시사적 내용을 비교해보면 마인드 맵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월드컵, 통일 등으로 집중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서는 월드컵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대신 한반도 지도에 38선을 그리는 등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도 언급하였다. 스케일에 따라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케일에 따른 지역학습 내용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함을 알려준다.

각 스케일에 따라 학생들이 지도와 마인드 맵에 표현한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그림 4와 같이 나타냈다. 지도에 표현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지역

표 3. 학생 지역인식 조사 분석표 (마인드 맵, 지도)

	지 역	표현한 내용	표현 정도				
			①	②	③	④	⑤
1	지역사회 (수도권, 중부지방, 우리나라)	지리적 내용(자연)	없음	간략히			상세히
2		지리적 내용(인문)	없음	간략히			
3		문화적 요소(역사, . .)	없음	간략히			
4		지역시설(학교, 공원, . .)	없음	간략히			
5		시사적 내용(월드컵, 통일)	없음	간략히			
6		지명사용	사용안함				많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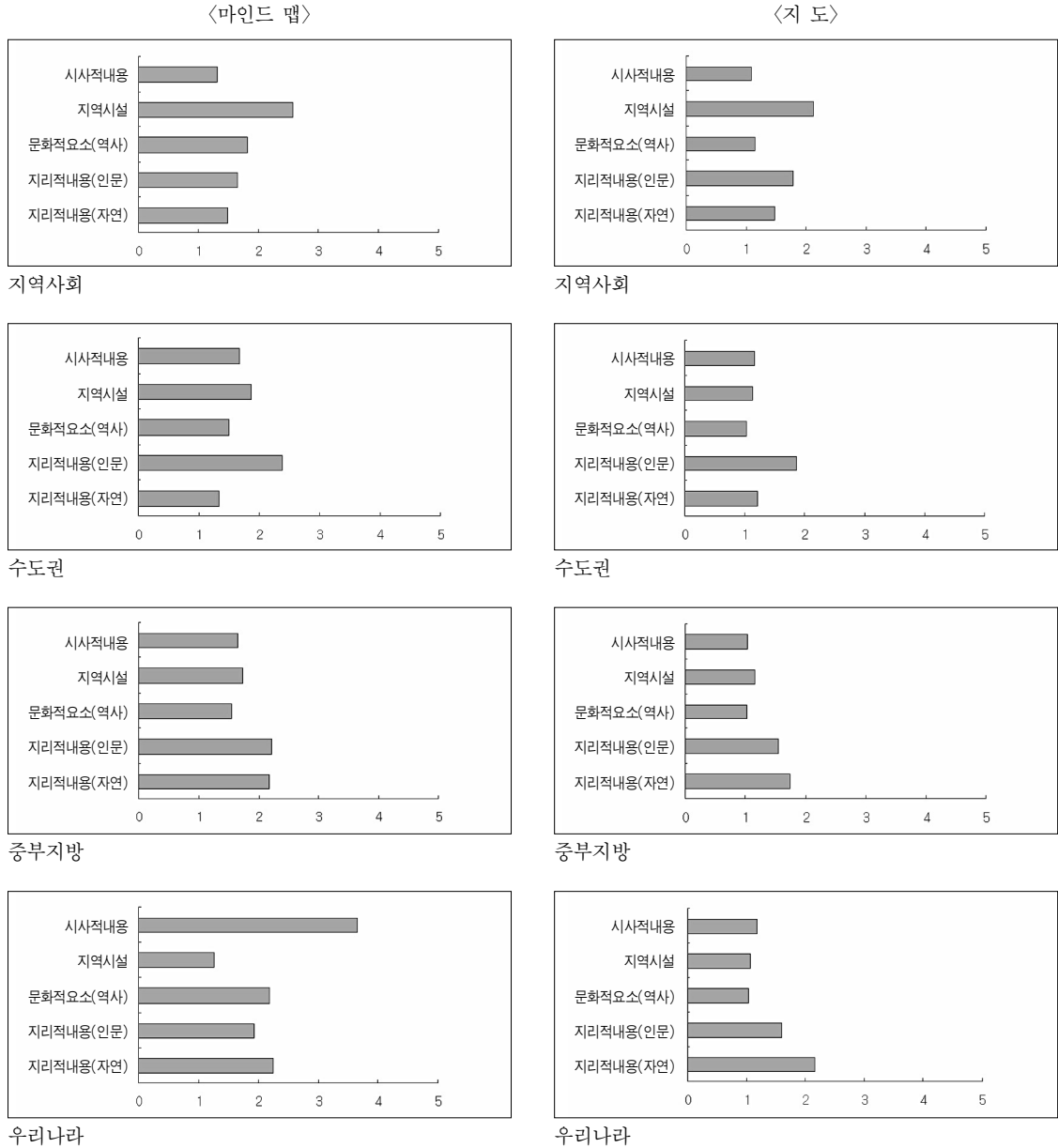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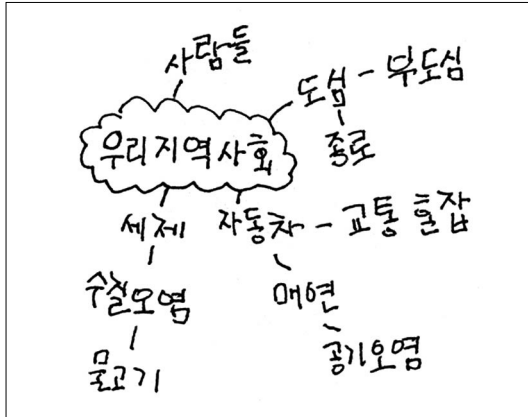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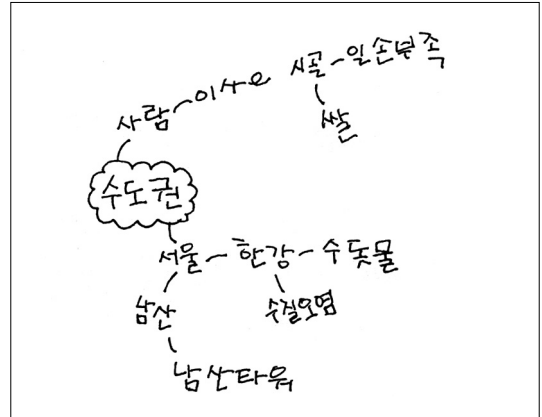
그림 4. 스케일에 따른 마인드 맵과 지도의 표현 내용

사회에 대해서는 지역시설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인문 지리적인 내용을, 중부 지방에 대해서는 자연 지리적 내용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연지리적 내용을 잘 표현했다. 마인드 맵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 시설, 수도권의 인문 지리적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지도의 경우와 비슷했다. 그런데 중부 지방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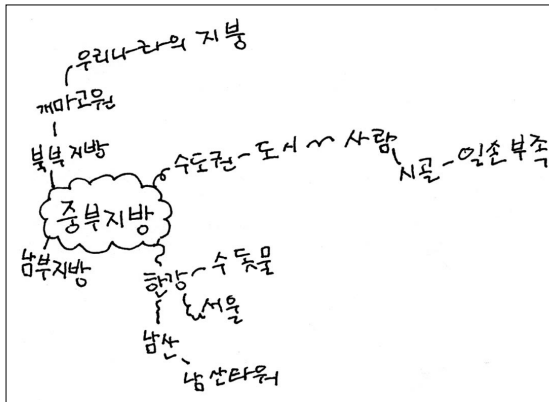
서는 자연 지리적 내용과 인문 지리적 내용도 표현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시사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지도와 마인드 맵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지도보다는 마인드 맵에 양적으로 보다 많은 내용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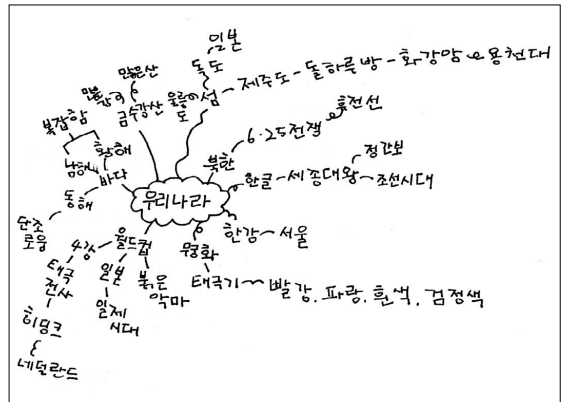
지역사회



수도권



중부지방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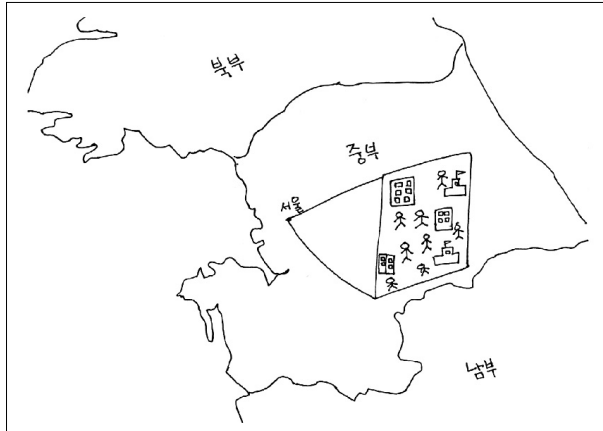
그림 5. 스케일에 따라 작성한 마인드 맵 (학생 2)

V.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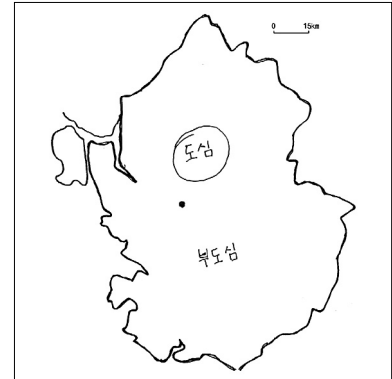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명시적 개념 정립 기회가 없었고,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지역의 스케일을 이해 하는데 곤란을 겪으면서 지리적 의미의 지역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역과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지역에 대해 범위의 면(面)적인 개념보다는 지점, 위치 등의 점(點)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랜드마크, 시사적으로 주목받는 지역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역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여행이나 테마학습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 각 스케일별로 마인

드 맵과 지도를 작성하는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케일에 따른 지역 특성과 주요 연구 주제를 원활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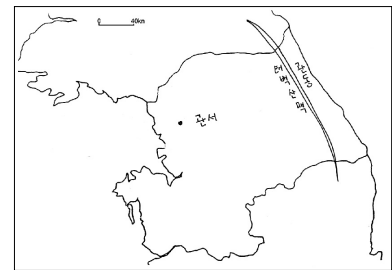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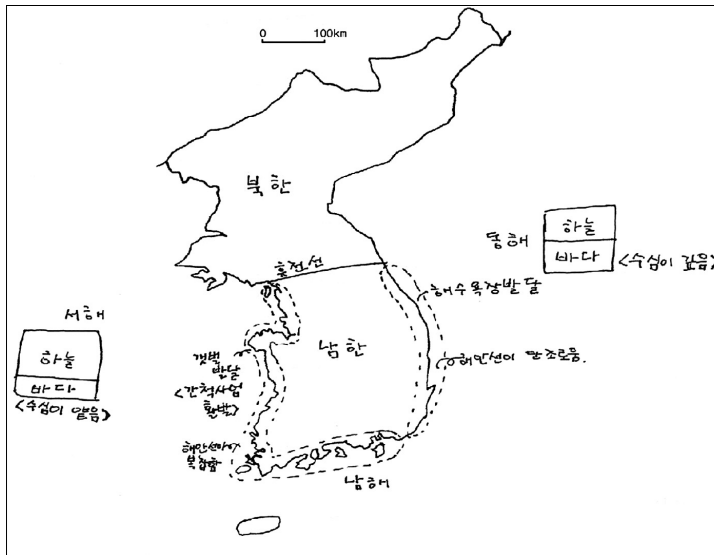
지역은 공통된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개념이 형성되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혹은 역으로 개념적인 지역보다는 실제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지역이 고유하고 명확한 실체라기보다는 지리학자가 창조한 관념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제로 지역의 구분보다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의 연계를 학습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역을 자연적, 인문적 사실들이 축적되어 있는



지역사회



수도권



중부지방

우리나라

그림 6. 스케일에 따라 작성한 지도 (학생 2)

것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던 지역지리학은 점차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대응하고 상호존적인 지구적 체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역을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며 그 지역에서 학습할 개념을 찾아내야 한다.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시사, 언론 등을 통해 형성된 담론이 반영되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나 관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객관적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따라서 학생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리학내용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역학습 과정에 지도읽기, 지도 그리기를 강조하여 개념형성을 도울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는 스케일의 다양성을 이해할 때 보다 풍부해 질 수 있으므로 지역스케일을 유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개인으로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지역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고유

한 경험을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지리학자들이나 기존의 지역구분 관성을 따라 구성된 현재의 지리교과서와 같은 구조는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 참여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중간적 지역스케일의 지역을 선정하여 교사-학생이 경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역학습을 시도할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개념을 보다 명확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그리기와 지도 읽기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지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범위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지역학습에 지역에 대한 직접 관찰과 담론에의 참여 등을 이룰 수 있는 답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의미있게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답사방법을 개발하고 고안해야 할 것이다. 답사과정을 그대로 교실학습과정에 들여와 학습 내용은 지역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습과정은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관찰하고 주민을 만나 그 입장을 들어보는 것, 그 지역에 관한 이슈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의 지역조사를 통해 지역의 시각적인 경관,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역 변화, 지역체계 이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인식의 자원인 다양한 경관과 관련된 학습 경험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중간적 수준의 학습지역을 설정하여 지역학습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지역학습 내용구성은 적절한 지역범위 선정에 있어 스케일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만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상의 내용과 학생·교사의 인식을 반영하는 중간 단계의 학습 내용 구성 방안이 요망된다.

註

- 1)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질적 연구로 불리는데 질적연구자들은 양적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통계자료, 통계표 대신 문화기술지, 역사적 일화, 일차정보자의 설명, 정치사건,

생활사, 픽션화된 사실, 전기와 자서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길병휘 외, 2001, Limb and Dwyer (eds.), 2001).

- 2) 이 조사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두 단위 (지역사회조사 단위와 중부지방의 생활 단위)을 학습한 후에 실시했다.
- 3) 예를 들어 우리 지역과 다른 나라의 지역에 대한 차이점에서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어업이 발달했지만 사망이 막혀 있는 중국은 어업이 발달하지 못하다.' 라고 적은 학생이 있었다.
- 4)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된 기술로는 직업, 옷, 사투리, 아파트경관, 학원 등을 들 수 있다.
- 5) 예를 들면 고령지농업, 상업적 농업, 우리나라의 중앙부, 간척사업,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인문환경 등이 있다.
- 6)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제망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고자 교재가 개발되기도 했다(이간용, 이우평, 2003).
- 7)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행사를 위해 체험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허가를 얻어 실행하며 이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8) 어떤 학생은 지역시설이나 지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형도 있어 지명을 많이 사용한 학생과 대조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길병휘 외, 2001,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교육과학사.
- 남상준, 2001, "地理教育 現狀의 檢討와 定向의 探索," 추계학술대회발표요약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9.
- 류재명, 2002, "학생의 일상생활경험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수업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1-16.
- 박승규, 2000,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리교과의 재개념화, 한국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태열, 2002, "지리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지리교육)," 한국 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IV-1, 한국 학술단체연합회, 124-142.
- 송언근, 김재일, 2002,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364-379.
-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 강진·해남지역을 사례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간용, 이우평, 2003, 내고장 인천 향토교육 길라잡이 인천탐구, 재단법인 인천학술진흥재단.
- 이현옥, 1978, “초·중등학교 지도 교육의 주요 개념에 관한 연구,” 地理學과 地理教育, 8.
- Tae-Yeol Seo, 1994, Recontextualizing geography curriculum : Society, student and discipline of geograph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9(4), 438-449.
- Bednarz, S. and R. Bednarz, 2003, Alternative geography, Gerber, R.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Geographical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99-113.
- Brunt, B. M., 1995, Regions and western Europe, *Journal of Geography*, 94(1), 306-316.
- Cross, A. J.,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s place location knowledge, *Journal of Geography*, 86(2), 59-63.
- Johnston, R. J., 1996, A place in geography, in Rawling, E. M., and R. A. Daugherty (eds.), *Geography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59-76.
- Limb, M. and C. Dwyer (eds.), 2001,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Geographers*, Arnold, 1-20.
- Minshull, R., 1967, *Regional Geograph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Porter, W. P., 1987, In Dunkelsten Afrika: Africa in the student mind, *Journal of Geography*, 86(2), 51-58.
- Scoffham, S., 2000, Europe matters, in Fisher, C. and T. Binns (eds.), *Issues in Geography Teaching*, RoutledgeFalmer. 219-233.
- Trygestad, J., 1997, *Student's Conceptual Thinking in Geography*, Ph. D. Thes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